

강 의 계 획 서

베를린으로 떠나는 오케스트라 여행

1. 강의 개요

강의명	베를린으로 떠나는 오케스트라 여행
일시	2026. 10. 16. (금) 10:00 ~ 12:00 (120분, 1회)
장소	사상도서관 다목적실
대상	성인 30명 (클래식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강사	서정아 / 부산대학교 10.16 연구소 연구원
진행 방식	이야기 강연 + 공연 영상 함께 보기 + 소감 나누기
주제도서	『세계의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하프너, 홍은정 옮김, 경당)

2. 강의 소개

비행기 없이 베를린으로 떠나는 두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의 콘서트홀에 들어가 그들의 연주를 함께 보고 듣습니다.

베를린 필은 140년 전 단원들이 스스로 만든 악단입니다. 지휘자도 단원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악단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단원들이 벌인 갈등, 후계자를 뽑다가 결론을 못 낸 11시간의 투표, 여름밤 숲속에서 2만 명이 휘파람을 불며 함께하는 연주회까지.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곡을 세 시대의 베를린 필로 들어봅니다. 1950년대, 1980년대, 그리고 작년 서울에 왔던 지금의 베를린 필. 같은 악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어느 연주가 내 마음에 드는지 직접 골라 보는 시간입니다. 강의를 끝나면 "좋은 연주였다"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연주는 이래

서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클래식 연주회에 가 보고 싶지만 어디를 보고 들어야 할지 막막했던 분
- 베를린 필 내한공연을 다녀오셨거나, 유튜브에서 오케스트라 영상을 즐겨 보시는 분
- 여행과 예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 —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이 악단을 키웠는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4. 강의 흐름 (120 분)

시간	순서	무엇을 하나요
10:00~10:10	베를린 필하모니에 도착	무대를 객석이 사방에서 감싸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콘서트홀 사진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10:10~10:30	오케스트라, 이렇게 들어보세요	같은 대목을 두 연주로 나란히 듣고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달리는지" 같은 쉬운 질문으로 차이를 찾아봅니다. 듣는 귀를 여는 짧은 연습입니다.
10:30~11:00	베를린 필 이야기 다섯 장면	단원들의 창단, 전설의 지휘자들, 카라얀과 단원들의 갈등, 인터넷으로 열린 콘서트홀, 그리고 2025년 서울 공연까지 — 사진과 짧은 음악으로 듣는 140년.
11:00~11:10	휴식	
11:10~11:50	한 곡, 세 시대 — 함께 보기	브람스 교향곡 1번의 같은 대목을 세 시대의 베를린 필로 보고 듣습니다. 마지막은 여름밤 숲속 야외 연주회의 흥겨운 피날레로 마무리합니다. 보고 나서 옆 사람과 소감을 나눕니다.
11:50~12:00	여행에서 돌아오며	집에서 베를린 필 공연을 이어서 보는 방법, 주제도서 소개, 질문과 답.

5. 준비 사항

수강생	준비물 없음. 주제도서는 강의 후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도서관	빔프로젝터·스크린, 노트북 연결, 스피커 (영상 감상이 많아 음향 사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유튜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유인물 30부 인쇄
강사	강의 슬라이드, 공연 영상, 참가자 유인물(감상 메모지 겸 집에서 이어 듣기 안내)

6. 기대 효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어렵고 격식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로 따라갈 수 있는 즐거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는 동안 각자의 감상 언어가 생기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주제 도서와 온라인 공연 영상으로 감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프로그램명	파리에서 만난 인상주의 미술		
강의 목표	파리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인상주의 미술을 이해하고, 시대적 배경과 세계관이 미술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탐구하며, 미술 감상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한다.		
강의 일시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12시(120분)		
강사	박송화 ▶미학연구자, 예술학 석사 및 박사수료(부산대 대학원),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출강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2023) 출간 ▶도서관, 대학교, 박물관 등 출강 ▶<현대미술산책>(예술의 초대) 연재(2024~) 및 각종 매거진 예술 칼럼 기고 ▶KBS부산라디오, '부산의 오늘' <명화로 듣는 서양미술사> 진행(2025),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미술방송 감수(2023)		
차시	강의 내용		
1회 (10/23)	본 강의에서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인상주의의 미술을 탄생과 진행을 살펴본다. 19세기 후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은 파리에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적극적으로 대면하며 관습을 넘어서 새로운 예술로 나아갔다. 그 결과 역사나 종교적 주제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색채로 담아내는 인상주의 미술이 탄생한다. 강의를 통해 19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 경제적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인상주의 미술이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고찰한다. 나아가 인상주의를 다루는 파리의 유명 미술관들을 함께 살펴보고, 미술이 어떻게 시대와 도시를 관통하는지 이해한다.		
	강의 이미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는 발레

강연자: 노영재 (춤 비평가, 신라대학교 연구교수)

▶ 주제도서

노영재(2024). 『발레 너머 예술: 발레, 예술, 문화를 향한 비평적 시선』.
현북스.

▶ 개요

: *이탈리아 궁정에서 러시아 황실까지, 발레 400년의 여행*

우아한 발레리나와 토슈즈, 하얀 튀튀와 <백조의 호수>
우리에게 익숙한 발레의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발레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러시아를 대표하는 예술이 되었을까요?

이 강연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궁정에서 태어난 발레가 루이 14세의 프랑스를 거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황금기를 맞이까지 400년 클래식 발레의 역사를 한 편의 여행처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완성된 주요 발레 작품의 명장면을 함께 감상하며 발레리나는 왜 발끝으로 서는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 쉽고 흥미롭게 알아봅니다.

발레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한 번쯤 제대로 보고 싶은 분,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인형>은 알지만 무엇을 보며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궁금했던 분, 클래식 음악·미술·공연예술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여행지의 역사와 예술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께 권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는 발레>는 발레를 배우기 위한 강연이라기보다 발레를 즐길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강연입니다.

▶ 주요 내용

1. 우리가 아는 '클래식 발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발전한 발레
- 발레를 사랑한 왕 루이 14세와 프랑스어 발레 용어
- 토슈즈와 튀튀의 등장, 오늘날 발레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2. 클래식 발레의 황금시대, 상트페테르부르크

- 러시아 황실과 마린스키 극장
- 마리우스 프티파와 차이콥스키
-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로 완성된 클래식 발레

3.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클래식 발레

- <백조의 호수>를 중심으로 만나는 대표 작품들
- 토슈즈, 파드되, 바리에이션, 군무 등 클래식 발레의 문법
- 주요 명장면 이미지와 영상 감상